

1920~3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 연구
-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재현 방식을 중심으로

정가람*

1. 머리말
2. 인물 관련 역사 서술 고찰
3. 『드면錄』-대체역사의 기록
4. 맺음말

국문요약

‘취미와 실익’을 표방했던 『별건곤』의 매체적 특성상 이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1920년대 대중 독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서사 전략의 일환인 역사적 인물의 설정과 이를 통한 대중 기억과 담론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별건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별건곤』이 표방하고 있는 ‘취미’나 오락 담론은 단순히 쾌락이나 유희이 아니라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져 온 계몽 및 대중적 삶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취미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당대의 조선인을 근대적 인간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계몽의 탈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별건곤』의 취미 담론 역시 일종의 민족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공적 담론으

*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강사

로서의 계몽과 의식의 각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구현된 역사 담론 속에서 『별건곤』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당대 조선의 대중들이 민족의 지표로 삼아야 할 인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을 호명함에 있어서 어떤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별건곤』은 『드면궂』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접점을 통해 독자들의 역사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지향해야 할 희망적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면서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대의에 이르고 있다. 『별건곤』이 민중을 위한 대중잡지로서 민족정신의 고양을 위한 효과적 역사 담론을 펼치기 위한 서사 전략의 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주제어 : 『별건곤』, 취미, 대중 독자, 계몽, 의식의 각성, 역사적 인물, 역사 담론)

1. 머리말

대중매체는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역사적 '기억'을 호출하는 동시에, 동일한 역사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역사적 '기억'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당대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생산은 당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근대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현실 인식 역시 달라지

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셈이다.

대표적 대중매체인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기사와 논설, 소설 등이 게재되는 신문사나 신문의 입장 또는 논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처럼 대중잡지 역시 당대 대중 독자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상업적 목적에 의한 출판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따라 소재로 삼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급변하는 당대의 정세와 독자의 요구, 취향에 의해 취사선택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편집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독자에 대한 고려라는 것은 근대 산업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일반 대중이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편집진들은 광범위한 대중적 수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대중적 문화 혹은 문화 내용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대중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대 정치·사회 문제에서 소재를 택하거나 독자들이 자신을 투사하여 동일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필연적인 전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1920년대는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¹⁾와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피폐함이 심화되던 시기였다. 당시 조선 민중의 경제가 극도로 피폐했다는 사실은 다른 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

1) 3·1 운동 실패 이후 일제는 총독무관계를 철폐하는 등 노골적인 무력지배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선지배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의 발달과 민력(民力)의 충실'이라는 슬로건 아래 문화 정치를 표방하고 나섰다.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민족의 자치를 허용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주지하다시피 문화정치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으로 실제로는 더욱 교묘하게 우리 민족을 탄압한 정책이었다. 예를 들어 헌병 경찰제를 보통 경찰제로 바꾸었지만, 전국 각지에 경찰서를 더 많이 만들었으며, 경찰관의 수도 대폭 증가시켜 더욱 치밀하게 사람들을 감시했다. 또한 문관 총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으나,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문관 총독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 정책이 가지고 있는 기만적 속성을 간파할 수 있다.

2) 박달성, 「彼丈夫我丈夫의 咸南均勢」, 『개벽』, 1924년 11월호, 통권 53호, 109쪽.
차상찬, 「可驚할 黃海道內이 일본인 勢力」, 『개벽』, 1925년 6월호, 통권 60호, 82쪽.

당대 문단의 주요한 잡지들이 휴간되거나 폐간한 것도 이 시기이다. 1924년에 창간되어 문예전문지로서 동인지 문학의 폐쇄성과 자족성을 거부하고 대중 속에서 문학의 정체성 찾기를 시도했던 『조선문단』이 1926년 8월 18호를 끝으로 휴간했으며, 1920년 종합지로 창간되고 정론적 성격이 강했던 『개벽』 역시 같은 해 8월 72호로 폐간되었다. 6월 『문예운동』의 폐간과 더불어 당시 침체되어 있던 문단의 상황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사건인 셈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롭게 발간된 『별건곤』은 창간호의 여언(餘言)을 통해 그 발간 취지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압혼 생활에서 새로운 웃어도 보아야겠다 웃어야 별 수는 업겠지만은 그러라고 울고만 있을 것도 안이다 우리는 형편도 그러케 되지 못하였지만 웃음을 우슬 줄도 모른다. 자 좀 웃어보자! 입을 크게 버리고 너털우슴을 우서보자! 그러타고 압혼 것을 이저서도 안이된다.

그럼으로 우리는 벌써 一年이나 前부터 趣味와 科學을 가추인 雜誌 한어를 經營하여 보자고 생각하였었다. 그러나 일상 하는 일이지만 말이 먼저 가고 실행이 나중 가는 것은 일반이 아는 사실이라 일 년 동안이나 내려오다가 開關이 閉止를 當하자 틈을 타서 이제 『別乾坤』이라는 趣味雜誌를 發刊하게 되었다. 開關의 後身으로는 言論雜誌의 出願이 許可 되는대로 또 編輯을 시작하려니와 『別乾坤』으로 말하면 閑暇한 겨울을 利用하여 시작한 것이니 結局 압혼로 二種의 雜誌를 우리는 期待하여보자!³⁾

‘아픈 생활에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웃어보자, 그렇다고 아픈 것을 잊어서도 안 된다’는 편집진의 각오는 『별건곤』이 지향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식민치하에서 신음하는 조선의 민중들에게 ‘취미’와 ‘실익(實益)’의 세계를 열어주는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_____, 『일본인에게 전멸된 전북의 토지』, 『개벽』, 1925년 12월호, 통권 64호, 95쪽.
3) 『餘言』, 『별건곤』, 1926년 11월, 창간호, 153쪽.

다. 이런 맥락에서 『별건곤』이 채택하고 있는 역사 담론은 대중들의 기대지평에 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서사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별건곤』은 그 가치가 폄하되어 있었으며 연구 결과 역시 취미 담론과 가정 담론, 여성(혹은 젠더) 담론, 서사 담론 등의 영역에서 매우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취미 담론을 다룬 연구로는 당대 대중문화의 하나로 유행했던 ‘산책’ 담론을 대중 시선의 정치학으로 풀어낸 권재린의 『산책을 둘러싼 대중 담화의 지형도: 대중잡지 <별건곤>의 경우』⁴⁾와 영화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를 받아들이고 향유하게 된 근대적 주체로서 대중의 영향력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전지은의 『《별건곤》의 영화담론 연구』⁵⁾가 있다, 또한 전해진은 『《별건곤》에서 드러난 도시 부르주아 문화와 휴양지 표상』⁶⁾에서 휴양지라는 표상을 통해 도시 부르주아 문화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문화연구의 한 영역인 풍속학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휴양지에서 감상은 결국 제국의 자본논리에 종속된 것이며, 식민지적 주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해석한다.

가정 담론 연구로는 1920~30년대 남편의 역할과 가족정책에 주목한 전미경의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 『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⁷⁾와 신가정 담론이 말하는 새로운 가족상의 구체적 개념과 그 성격 변화에 대해 쓴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⁸⁾이 대표적이다.

4) 『어문연구』40, 2012.

5) 『한국언어문화』42, 2010.

6) 『한국언어문화』46, 2010.

7) 『한민족문화연구』29, 2009.

8) 『가족과 문화』19권 4호, 2007.

여성 담론 부분에서는 비교적 의미있는 논문이 눈에 띈다. 김희정은 『『별건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⁹⁾에서 신여성 문화를 교육, 사회활동, 가치관의 측면에서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는 신여성의 의생활과 일반 여성의 의생활에 미친 영향관계를 고찰하고 있다. 박숙자는 『과기에서 넌센스까지: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 - 『별건곤』을 중심으로』¹⁰⁾에서 기(奇)와 성(性)의 수사학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이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뒤이어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 『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호를 중심으로』¹¹⁾를 통해 『별건곤』에 드러나고 있는 여성의 기호를 소비문화의 맥락에서 고찰하고 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읽을거리가 요양이자 오락일 수 있으며, 이는 계몽을 반납하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1920년대 대중매체가 계몽을 전유한 결과’¹²⁾라는 해석을 제시하는데, 『별건곤』이 표면적으로 취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계몽을 완전히 탈각했다고 보는 시각과는 다른 관점의 글이다. 또한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 정치·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바뀌어가는 신여성 담론을 다룬 안희정의 『일제강점기 『별건곤』에 나타난 신여성론』¹³⁾도 있다.

글쓰기 전략 혹은 소설, 서사 담론을 다룬 의미있는 연구로는 취미의 영역에서 소설 외 서사가 하위 제도로서 안착되는 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이경돈의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¹⁴⁾을 필두로 하여

9) 『복식문화연구』12, 2004.

10) 『여성문화연구』14, 2005.

11) 『한국근대문학연구』17, 2006.

12)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론화와 젠더화: 『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17, 2006, 180쪽.

13)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14) 『대중문화연구』46, 2004.

『별건곤』의 글쓰기를 통해 이 시기의 근대성이 지니는 의미를 살피고 소비문화의 대중화 전략에서 이전 잡지들과의 차별성을 논의한 김진량의 「근대 잡지 『별건곤』의 “취미 담론”과 글쓰기의 특성」¹⁵⁾, 그리고 당대 사회·문화적 상황, 다른 독물(讀物)들과의 연관 관계 안에서 소설의 특징을 살펴본 오선영의 「대중소설의 유행과 장르 분화-『별건곤』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¹⁶⁾가 있다. 이용희는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의 탐보적 주체 형성과정 연구』¹⁷⁾에서 1920~30년대 단편 탐정소설이 신문·잡지의 범죄관련 기사를 매개로 하여 서구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번역·번안 탐정소설과는 차별화된 장르적 특성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승윤은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¹⁸⁾에서 『별건곤』에 실린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독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글쓰기 전략을 살피고 있다. 다양한 독물들의 일관되지 않은 양식 표기 자체가 문학사적 가치 절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역사 관련 서사에 관한 다각적 접근이 기존 문학 구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그의 해석은 앞으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식민지 시기 근대소설의 사회적 제도와 과정에서 천도교가 끼친 영향 관계를 조명하고 있는 유석환의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¹⁹⁾, 김옥균에 대한 기억 욕망과 재현 방식들을 아시아주의, 민족주의 및 대중 미디어, 군국주의의 전유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 이상우의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과 그 의미-식민

15) 『어문학』88, 2005.

16) 『문창어문논집』46, 2009.

17)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9.

18) 『한국문학논총』56, 2010.

19) 『대동문화연구』73, 2011.

지시대 김옥균의 극적 재현방식을 중심으로』²⁰⁾ 등이 있다.

위의 논의들과 더불어 당대 직업에 주목한 조미희의 『《별건곤》의 직업관련 기사와 그 특성』²¹⁾과 한국인의 자랑거리 기사에 착안한 이예나가 유코의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한국 자랑』²²⁾ 연구 등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별건곤』이 6전 잡지로 불렸던 통속잡지였다는 매체적 특성과 더불어 창작 소설의 분량이 적고, 문학적 가치가 결여된 소설 외 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별건곤』이 가진 문학사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1920년대 대중잡지 『별건곤』의 문학사적 위치를 기늙하기 위해서는 그 매체적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서사 담론과 장르의 문제, 주체의 문제와 연결하여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 작업의 일환으로 우선 1926년 11월에 창간되어 1934년 6월, 통권 73호로 폐간된 대중잡지 『별건곤』의 역사 담론을 대중 기억의 재구성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정사(正史) 중심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역사 담론의 틀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글쓰기를 통해 구현된 역사 담론을 살펴보고, 『별건곤』이 어떤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떤 역사적 인물을 호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당대 조선의 대중들이 민족의 지표로 삼아야 할 인물로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물들을 호명함에 있어서 어떤 서사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드면’이라는 실재 역사에 대한 반사실적(反事實的) 가정법을 통해 암

20) 『한민족어문학』 58, 2012.

21) 『한국언어문화』 41, 2010.

22) 『인문과학연구』 33, 2012.

올한 식민지 조선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자기 반성으로 나아가는 역사 서술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허구의 접점에 주목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역사적 인물과 그와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잡지로서의 체계나 편집진 연구 등 『별건곤』에 관한 다른 연구는 지면을 옮겨 계속하기로 한다.

2. 인물 관련 역사 서술 고찰

『별건곤』의 역사 관련 서술 기사를 살펴보면, 전기(傳記), 애사(哀史), 몽유록(夢遊錄), 야담(野談)과 기담(奇談), 논평 등의 다양한 글쓰기 형식을 빌어서 국내와 국외를 망라한 수많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초반에는 대개 과업을 달성했거나 혹은 달성하지 못하고 원통한 죽음을 맞게 된 국내의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홍경래와 김옥균에 관한 기사는 네 차례 이상 실리고 있다.²³⁾ 그리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인물에 관한 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임경업, 을지문덕, 양만춘, 최영, 남이, 이순신 등의 인물이 여기에 속한다.

23) 『별건곤』 내 김옥균 관련 서사-김진구, 『金玉均 先生의 죽든 날』, 1927년 3월호, 통권 5호/진구생, 〈現代朝鮮青年에게 與하노라〉, 『地下國訪問記』, 1927년 3월호, 통권 5호/김진구, 〈김옥균의 변혁운동이 성공했다면〉, 『드면록!!』, 1927년 7월호, 통권 7호/윤치호, 〈上海 埠頭에서 永別한 金玉均〉, 『새 正月에 생각나는 사람들』, 1929년 1월호, 통권 18호.

『별건곤』 내 홍경래 관련 서사-박돌이, 〈三大不平과 五大恨事를 드러 現代有志諸君에게〉, 『지하국방문기』, 1927년 4월호, 통권 6호/문일평, 〈地方的 差別待遇에 反抗한 平西大元帥 洪景來亂〉, 『朝鮮三大內亂記』, 1928년 8월호, 통권 15호/桂山人, 〈一張書로 天下의 不平客을 니르킨 平西 大元帥 洪景來檄文〉, 1929년 2월호, 통권 19호/차상찬, 〈自稱大燕王 洪景來辛未反亂記〉, 1931년 1월호, 통권 36호.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에 걸쳐서는 신흥 독립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에 대한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 토마시 마사리크, 터키의 케말 파샤, 폴란드의 필스도스키, 알바니아의 아메드 B. 조그에 대한 글이 두 차례 이상 실려 있다. 『별건곤』에 실려 있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관한 기사는 모두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실제 인물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사화(史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야담의 서술 방식을 취하면서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찬탄의 시각과 비판, 책임 전가의 시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혁명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찬탄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기사들이다. 대원군, 원두표²⁴⁾, 손병희, 여민웅과 허비²⁵⁾의 이야기를 다룬 『통쾌무쌍 쾌인쾌거록』²⁶⁾이나 사육신, 정발(鄭發)²⁷⁾, 애향²⁸⁾, 송상현 등을 다룬 『역대인물 쾌사록』²⁹⁾과 같은 인물기사와 을지문덕, 양만춘, 이순신 등을 부각시킨 『조선 사상 삼대전첩 니약이』³⁰⁾ 같은 역사 서술물에서 찾을 수 있다. 1929년 이후에 등장하는 마사리크나 케말 파샤, 필스도스키, 조그에 관한 서술 역시 독립국으로 거듭나게 한 위업(偉業)과 그들의 인물됨을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건곤』의 대다수 역사 담론은 이러

24) 1593~1664(선조 26~현종 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광해군의 정치가 점점 문란해지자 의사(義士)들과 인조반정 모의에 협찬하였고, 반정이 성공한 뒤에는 그 공으로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책록되고 원평부원군(原平府院君)에 봉해진 인물이다.

25) 진시황에 맞서 싸운 인물들. 신행철, 〈百斤鐵椎로 萬乘天子를 썰린 滄海의 두力士 黎民雍은 博浪沙에서, 許耀는 蘭池宮에서〉, 『痛快無雙快人快舉錄』, 『별건곤』, 1927년 12월호, 통권 10호, 17~21쪽.

26) 『별건곤』, 1927년 12월호, 통권 10호.

27) 조선 중기의 무신. 임진왜란 때 부산진첨절제사로 부산에 상륙한 왜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했다.

28) 정발의 애첩. 당년 18세에 정발의 죽음을 목도한 후 자결했다고 한다.

29) 『별건곤』, 1927년 12월호, 통권 10호/1928년 2월호, 통권 11월호.

30) 『별건곤』, 1928년 5월호, 통권 12·13호.

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快死! 快死!! 痛快한 죽음-義人烈士의 나라를 爲하며 民族을 사랑하는 忠義에서 나오는 伏劍割腹의 죽음! 武夫勇將의 砲烟彈雨 中에서 東驅西馳하다가 壯快한 矢石의 죽음! 이것이 모두 다 盛舉이며 快死이다. 他日에 懦夫弱卒로 하야곰 拍案蹴席의 一場奮勇을 揮揚함도 이 快死에서 일어나며 千載後의 英雄豪傑로 하야곰 枕頭含淚의 一時悲曲을 演出함도 이 快死에서 原因한다. 搾아서 血이 湧하고 肉이 躍하며 士氣를 鼓舞하고 人心을 湧動하야 그 國家 그 民族의 興亡盛衰의 잠을식를 쥐고 있는 偉人傑士도 여기서 일어나며 全地球를 들어 爆破할 듯한 大風雲 大活動劇도 이 教育에서 萌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여기 歷代人物快死錄을 쓰는 것이 엇지 偶然한 짓거리이며 徒爾의 事로만 돌려보내고 말 것이라?

그러면 快死란 과연 무엇인가? 奉先아! 奉先아!를 連呼하며 大耳兒를 怨恨하야 一縷之命을 苟保하려고 가진 醜態를 演出하든 董卓 呂布의 못난 이 죽음! 朝鮮 最近에 와서 田某 李某의 시들부들 죽음! 敵에게 屈膝受辱하다가 필경 暗圖를 當하고 말든 加藤清正의 우서운 죽음! 이런 것이 快死인가? 그런 것이 百代後의 教育材料가 될 것인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龍逢比干의 壯快한 죽음과 朝鮮 朴泰輔의 단근질 죽음 이런 것을 만히 들어서 귀에 폭 저저왔다. 그러면 여기 소개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人物? 事業은 무엇? 讀者諸君은 아직 下回를 보아서 公正한 批判을 나리기 바라는 바이다.³¹⁾

민족의 지표로 삼을 만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관해서는 ‘쾌사(快事)’를 설명한 김진구의 윗글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을 사랑하는 충의에서 나오는 복검할복(伏劍割腹)의 통쾌한 죽음에 이른 인물들과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들은 ‘쾌(快)’라는 한 단어로 요약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때 편집자의 면모를 살펴볼 때 주목해 볼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이렇게 거창하게 ‘쾌사(快事)’에 대해 논의하고 야담운동을 통해 민족운동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던 김진구가 1930년대 중반에 이르

31) 김진구, 〈快事란?〉, 『歷代人物快事錄 一』, 『별건곤』, 1927년 12월, 통권 10호, 38쪽.

러서는 열렬한 내선일체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에 의한 문화정치는 결국 그들의 의도대로 우리 민족의 분열을 야기한 바, 그간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민족지도자들 중 일부는 빠른 시기에 독립은 힘들다니 일제의 통치를 인정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의 자치권을 부여받자는 자치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진구 역시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셈이다. 역사를 민중 교화의 수단으로 삼으며 야담 운동은 조선의 객관적 정세에서 비롯³²⁾되었음을 역설했던 그는 민족 운동의 전도가 불투명해지자 조선인의 민족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른다. 조선의 민족성으로는 스스로 문명개화로 나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 시기의 양반이 취약(脆弱)과 무저항의 민족성을 배태한 근본원인이라고 규정짓고 있다.³³⁾ 『별건곤』 편집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이 바로 이 지점에 놓인다.

한편, 당대 조선민중이 소망하는 것은 오직 조선의 독립이었다는 점에서 『별건곤』의 지면을 통해 이제 막 독립국의 기틀을 잡은 이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면면을 대중독자들에게 알리는 것은 중요한 과제였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사리크는 ‘70이 되기까지 빈한한 살림을 했고, 문벌의 여택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 마사리크가 어떻게 대사를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로지 ‘민족과 향토에 대해 타오르는 정열과 투철한 식견, 그리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와 실행력에서 비롯³⁴⁾된 것’이라는 마사리크에 대한 기사는 당대 대중독자, 나아가 조선 민중들에게 ‘용기와 실행력’을 요

32) 김진구, 『野談 出現의 必要性(五)-우리 朝鮮의 客觀的 情勢로 보아서』, 『東亞日報』, 1928.2.6.

33)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13, 2003, 94쪽.

34) 청오생, <一寸舌一柄筆로 新國家 創建! 偉人 「마사리크」大統領>, 『創道·建國·創語 三大偉人』, 『별건곤』, 1929년 4월호, 통권 20호, 38~41쪽.

구하는 글이다. 케말 파샤에 관한 기사 역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부침이 심했던 터키와 조선의 현실을 비교하게 만들고, 터키의 반영운동을 이끌었던 케말 파샤의 파란만장한 삶을 소개³⁵⁾하면서 조선이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한다.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沈滯黯黑하야 一般大衆이 迷路에 彷徨하며 方向을 알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大衆의 가슴속에서는 반듯시 『大人物 大英雄이 出現하야 나라를 救하라 세상을 건지라 民衆을 살여라 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된다. 世界大戰에 오래동안 極度로 疲廢한 歐洲諸國에서는 그 소리가 다른 나라보다 一層 더 높게 되였다. 그 불인지짐에 찌러서 伊太利에는 『못소리니』가 나오고 土耳其에는 『케말파샤』가 나오고 波斯에는 『리싸·칸』이 나왔다.

그리고 또 『알바니아』에는 『아메드·오그』가 彗星과 같치 나타났다. …… 『伊太利 군사야 조금이라도 우리의 國事는 干涉을 마려라. 우리는 全世界의 面前에서 이 神聖한 建國會議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몸을 국가에 바치여서 最後一人까지 피로 싸우라고 決心하였다 이러한 悲壯한 決心의 氣色은 青年 오그의 眉宇에 환연하게 射들었다. 아모리 橫暴한 伊太利의 군사라도 이 大膽不敵한 面魂과 하늘을 찌르는 듯한 愛國者의 압해는 逡巡치 안이치 못하였다.³⁶⁾

알바니아의 조그 1세에 대한 서술이다. 1921년 불과 26세의 나이에 알바니아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925년 스스로 국왕의 자리에 오른 조그 1세의 독재자로서의 이후 행보는 차치하고 위인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대중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가공하고 있는 편집진의 서사 전략으로 읽을 수 있으며, 위의 서술에서도 『별건곤』의 편집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로에 갇혀 방황하는 대중은 곧 당대 조선 민중으로 치환될 수 있으며, 나라를 구하고

35) 청오생, 〈青年土耳其와 『케말 파샤』〉, 『新興國의 新人物』, 『별건곤』, 1929년 6월호, 통권 21호, 80~82쪽.

36) 청오생, 〈알바니아 『아메드·오그』王〉, 『偉人·難關·努力』, 『별건곤』, 1930년 3월, 통권 27호, 12~17쪽.

세상을 건지며 민중을 살릴 대인물, 대영웅 출현의 바람은 조선 민중의 바람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또한 이태리 군사에 대적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피로 싸울 것이라는 부르짖음은 바뀌 말해 일제의 압제 속에 도탄의 생활을 이어가던 조선 민중을 향한 피끓는 호소와도 같다.

한편,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전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는 글도 있다.

李适이라 하면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依例히 그놈 逆賊 놈 죽일 놈 하고 餘地업시 붓으로 베히고 입으로 치고 발로 짓발버서 뒤의 사람들은 그가 果然 엇더한 사람인지 알 수도 업게 되였다. 그것은 過去 君權萬能時代에 當時 君主와 政府를 擁護하는 者들의 當然한 일이겠지만은 오늘에 잇서서 우리 一般 民衆으로 본다면 寧히 그를 豪傑兒 風雲兒라 할지언정 그다지 逆賊 놈이니 죽일 놈이니 할 것은 업다. 眞 所謂 成則君王이오 敗則逆賊이라고 그가 그새에 不幸히 失敗를 하얏기에 그러하지 만일에 성공을 하얏다 하면 高麗 太祖나 李太祖가든 創業之主가 되야 萬姓이 그의 功德을 謳歌하얏슬는지 알 수 업슬 것이오 그러치 안으면 적어도 第二 反正의 大元勳이 되야 혁혁한 芳名으로 竹帛에 들엇을 것이다.³⁷⁾

……光海君의 廢位運動은 表面으로 보면 그의 昏亂無道함을 理由로 삼엇지만은 內容인즉 長久간 北人에게 정권을 失하얏든 西人의 不平分子가 北人 內訌의 虛機를 타서 自黨의 세력을 奪回코자 하는 陰謀이다. 卽 西人의 金瑬, 李貴 등이 當時 政權을 掌握한 大北의 거두 鄭仁弘, 李爾瞻 등과 小北의 거두 朴承宗, 柳希奮 등을 覆滅하기 爲하야 根本的으로 光海君까지 廢位코자 함이였다. (光海君은 不幸히 이 政爭의 渦中에 入하야 犧牲이 되데 不過하고 實은 그다지 惡君도 안이다)³⁸⁾

위의 글은 1624년 인조반정의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이괄에 대한 글로서, 야사(野史)를 바탕으로 한 야담·사화

37) 차상찬, <三萬大兵으로 京城을 占領한 李适元師의 甲子反亂記>, 『별건곤』, 1927년 3월호, 통권 5호, 2~3쪽.

38) 차상찬, <三萬大兵으로 京城을 占領한 李适元師의 甲子反亂記>, 『별건곤』, 1927년 3월호, 통권 5호, 3쪽.

적(史話的)인 저술을 주로 했던 청오(靑梧) 차상찬(車相贊)³⁹⁾이 쓴 글이다.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의 필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글로서, 정사가 견지하기 힘든 야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해군에 대한 서술 역시 앞의 이괄과 같은 재평가의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야담 형식의 서사 차용은 당대 고소설의 서사 방식에 익숙했던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적극적으로 포섭하는 서사전략이었던 동시에 ‘대중성과 계몽성의 획득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⁴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비판과 책임 전가의 시각이 드러나는 「역대 음험 인물 토죄록」⁴¹⁾이나 「妖僧 라스푸친」⁴²⁾ 같은 역사 서술물들이다. 「역대 음험 인물 토죄록」에는 송시열, 정도전, 유자광에 관한 세 편의 글을 실려 있는데 이중 송시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錦繡神域 한복판 名勝地에다가 명나라의 天資廟를 堂々하게 威儀가 整肅하게 모시어 노코서 그 袞龍袍 소매스속에 숨어 안저서 眼中에는 國家도 民衆도 아모 것도 보히는 것 업시 精神이나 物質이나 덤허노코 모든 것을 들어서 그에게 받쳐서 三千里 錦繡神域을 더럽히고 二天萬 聖子神孫과 半萬年 高貴한 歷史를 餘地 업시 蹂躪한 人物을 우리 大衆은 三百年 동안=안이 지금까지도 一部 愚民은 民衆의 師表이며 道學君子로만 敬信해 내려왔다. 可惜한 일이다.⁴³⁾

39) 『개벽』을 비롯하여 『별건곤』·『신여성』·『농민』·『학생』 등의 잡지에서 주간 또는 기자로서 활약하였다. 차상찬을 비롯한 다른 『별건곤』 집필진에 관한 연구는 다른 지면을 통해 하도록 하겠다.

40) 이승윤,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 제56집, 2010, 14쪽. 이 논문에서는 ‘조선야담사의 창립과 더불어 야담부흥운동이 본격화된 때인 1927년을 지나면서 야담 관련 글쓰기는 한 호당 4-5편을 상회하는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41) 『별건곤』, 1927년 8월호, 통권 8호.

42) 『별건곤』, 1930년 1월호, 통권 25호.

43) 김학보, 「事大主義와 依賴思想의 張本人 所謂 海東朱子 宋時烈」, 『歷代陰險人物討罪錄』, 『별건곤』, 1927년 8월호, 통권 8호, 6쪽.

송시열에 관한 역사적 평가는 시대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가 조선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관해서만큼은 이의가 없을 것이다. 송시열은 사약을 받고 죽었음에도 유교의 대가들만이 오른다는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었고, 전국 23개 서원에 제향(祭享)된 인물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의 이름이 3천 번이나 등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조선을 ‘송시열의 나라’라고 불리게 할 만큼 조선 후기의 정치계와 사상계를 좌지우지했던 인물에 대한 논평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 비판의 근거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낼 생각을 하지 않고, 대국에 기대어 일신의 영달만을 바라던 당대 위정자들을 향한 지탄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

……公平한 眼光으로 千秋의 正論을 거두어 柳子光의 一生 行事를 들쳐보면 다만 南怡가든 國家의 干城을 一句의 讒言으로 誣殺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놈의 머리털을 뽑아서 서로 맞이여가지고 그 놈의 罪惡과 比較한다면 그 罪惡이 오히려 남어지가 잇슬만치 天地에 貫盈하야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서 석이 삭은 지 四百餘年の 春雨冬雪을 격근 오늘날이라도 公義의 잇는 바와 公憤의 소는 바에 南怡 一人의 冤痛한 녀두리를 하는 것으로 痛快할 수 업는 것이요 그 罪惡을 들어내고 또 들어내며 그 身命을 죽이고 또 죽일지라도 오히려 남은 義憤이 꺼지지 못하야 누구이나 燈前酒後의 拍案高聲이 徹骨의 恨과 窮天의 通을 끼친 士林界의 마음을 慰安시킬 수 업는 것을 부르짖음을 마지안는 것임으로 쏘다시 송장 노코 불기치는 소리를 자아내는 것이다.⁴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 인물들 중 남이(南怡) 장군에 대한 서술⁴⁵⁾은 대단히 비극적이다. 그리고 그 비극을 구성하는 핵심

44) 조규수, 〈朝鮮의 士禍를 즈음으로 이르킨 大凶孽·大奸物 柳子光〉, 『歷代陰險人物 討罪錄』, 『별건곤』, 1927년 8월호, 통권 8호, 12쪽.

45) 조규수, 〈經國의 大志를 품고 글字 한 字로 冤死한 快丈夫 南怡 將軍〉, 『三將軍伸冤錄』, 『별건곤』, 1927년 11월호, 통권 9호/차상찬, 〈二十六歲 陸軍大將으로 滿洲를 드

적인 요소는 젊디젊은 나이에 탁월한 경력-1457년 16세에 무과 급제, 1467년 26세에 적개(敵愾) 1등 공신에 책봉되었으며 이듬해 병조판서의 자리에 오름을 이루어냈지만 곧 모반의 혐의로 처형되었다는 사실의 대비(對比)일 것이다.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무장으로서의 뛰어난 면모에 대한 찬탄의 시선은 곧 남이의 모반을 고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유자광에 대한 분노와 울분의 시선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용맹함과 지략을 갖추고 있었던 남이를 죽게 만든 유자광에게 식민치하라는 당대 현실의 책임까지도 묻고 있는 것이다.

……그의 얼굴이 이상하게도 예수의 肖像과 恰似히 가뒀다. 그것이 그의 人望을 더욱 높히는 한 資本이 되었다. 그때의 러시아에는 救世主가 정말로 나타난 듯 하였다.

필경 라스푸친의 毒手는 政界에까지 썩치어 들어갔다.

專制君主인 쓰알에게 絕對權力을 가진 라스푸친에게는 策動家니 軍閥이니 僭正이니 하는 무리들을 그 手中에 넉키가 매우 容易하였다.

野心이 만흔 政客, 軍人, 銀行家, 投機師들은 라스푸친의 權力 背後에 숨어 全國민의 忿怒를 살 만한 賣國의 行爲를 하였다. 그들은 법률의 손에 걸려 有罪 判決을 받기도 오히려 라스푸친의 힘으로 無罪 放免의 特赦를 입었다.⁴⁶⁾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를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로서, 당시 니콜라이 2세 일가를 등에 업고 전횡을 일삼았다. 이 라스푸틴과 같은 인물은 조선에도 이었다.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매국노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920~30년대는 일제의 간교한 지배정책에 의해 문학가를 비롯한 민족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변절한 시기였다. 그들 스스로는 변절 혹은 매국 행위라고 생

리친 南台將軍의 青春時代). 『偉業은 青春에 있다 東西偉人의 青春時代』, 『별건곤』, 1929년 6월호, 통권 21호.

46) 최운생, 〈妖僧 라스푸친(二)〉, 『特輯讀物』, 『별건곤』, 1930년 1월호, 통권 25호, 130쪽.

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⁴⁷⁾, 결과적으로는 친일의 매국행위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별건곤』은 과거 역사 속에서 강대국에 빌붙어 일신의 안위를 누렸던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1920~30년 당대의 친일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별건곤』에 실려 있는 역사 서술물의 면면을 고찰해 본 결과 역사를 소재로 삼아 대중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식민치하라는 현실에서 당대 민중들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별건곤』에 실린 인물 관련 역사 서술물의 또다른 특징 하나는 전근대의 인물들은 전기(傳記)의 서사 구조 속에서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김옥균이나 손문, 장개석 등의 근대 인물들은 인물이 회고나 번역글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폐간될 즈음 마점산에 관한 기사는 신문의 호외기사처럼 실리면서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있다.

역사는 언제나 ‘사실(事實)’의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며, 따라서 허구성(虛構性)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취미를 발견해야 하는 당대의 맥락 속에서 허구성은 ‘역사적 사실’과 공존하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드면錄』같은 서술물이 대표적인

47) 이완용의 사후 이듬해인 1927년, 조카뻘이자 이완용의 내각총리대신 시절 비서관을 역임했던 김명수(金明秀)가 쓴 『일당기사(一堂紀事)』(一堂은 이완용의 호)에서 이완용은 자신의 삶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고 한다. “당시 미국과의 교제가 점차 긴요한 까닭에 신설된 육영공원에 입학했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갑오경장 후 을미년에는 아관파천 사건으로 노당(露黨)의 호칭을 얻었고, 그 후 러일전쟁이 끝날 때 전환하여 현재의 일파(日波) 칭호를 얻었다. 이는 때에 따라 적당함을 따르는 것일 뿐 다른 길이 없다. 무릇 천도(天道)에 춘추동이 있으니 이를 변역(變易)이라 한다. 인사(人事)에 동서남북이 있으니 이것 역시 변역이라 한다. 천도, 인사가 때에 따라 변역하지 않으면 실리를 잃고 끝내 성취하는 바가 없게 될 것이다.”

예가 된다.

3. 「드면錄」-대체역사의 기록

『별건곤』 1927년 7월호(통권 7호)에는 「드면錄!! 그새에 이리했드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었슬가」라는 표제하에 〈壬辰倭亂 亂年에 萬若 栗谷이 生存하였더면〉, 〈丙子胡亂새에 林慶業 將軍을 信任하였드면〉, 〈大院君이 만약 外人排斥을 안했드면〉, 〈金玉均 先生의 三日天下가 成功했드면〉, 〈最初의 民衆運動을 니르킨 東學黨이 政治的 訓練만 잇섯드면〉 등 모두 5편의 글이 실려 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壬辰倭亂 亂年에 萬若 栗谷이 生存하였더면〉에서는 만약 울곡이 살았더라면 선조에게 문왕의 강태공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군신공치(君臣共治)의 대헌 제정, 사민평등주의의 실현, 입법·행정·사법의 삼권 분립 등 정치혁신의 기초안을 만들었을 것이며, 선조가 이를 받아들여 책임내각제가 실시되면 동서 이파(東西二派)가 단결할 것이고, 결국 내치(內治)와 외교-일본과의 수호 조약 등 양면의 성공을 거두었을 것이라는 결말을 제시하고 있다. 〈丙子胡亂새에 林慶業 將軍을 信任하였드면〉은 임경업 장군은 당시에 능히 호족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지략과 무예를 갖추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조선의 패망을 기정사실화했기에 임경업을 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굴욕적 항복을 하고 말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大院君이 만약 外人排斥을 안했드면〉에서는 대원군이 프랑스 천주교도를 학살하던 그 수단을 뒤집어서 타국과의 외교를 강화했다더라면, 500년 동안 조선을 망쳤던 제도와 법령을 일시에 바꾸고, 문명한 법치적 제도를 모

방해서 새롭게 국부경강의 대정책을 수립했다면 하는 몇 개의 가정을 세우고 있다. 만약 그랬다면 일본의 유신보다 조선의 유신이 여러 해를 앞섰을 것이며, 일본의 유신사업을 지도해서 동양의 협조를 얻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영국과의 외교 관계가 먼저 맺어져서 현재의 국제적 위치도 달라졌을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金玉均 先生의 三日天下가 成功했다면>은 김옥균 일파의 삼일천하가 성공만 했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물질문명을 유입해 우리의 독특하고 우수한 국민성과 조화를 이루어 미려하고 장쾌한 문명국을 건설했을 것이고, 그렇게만 됐다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조종하여 동양평화라는 현금의 문제도 벌써 40년 전에 해결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最初の 民衆運動을 니르킨 東學黨이 政治的 訓練만 잊었다면>은 동학군이 만약 성공했다면 김옥균, 서재필과 같은 인사들이 동학군을 이용해 민폐정폐를 혁신하고 일대 신국가를 조직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 문호를 개방하여 외국문명을 수입했을 것, 청일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따라서 러일 전쟁도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드면-그리 하얏드면, 그러케 안헛드면, 그것이 잊섯드면, 그것이 업섯드면, 느젓드면, 일닛드면, 길엇드면, 짚벗드면, 불이엿드면, 물이엿드면…… 이러한 『드면』이란 尾語는, 後悔의 말이요, 嘆息의 말이요, 過去의 말이요, 生氣업는 말이다. 俗談에 『죽은 애귀 만져보기』란 말과 가튼 것이다. 못난 傭人들 사이에서 만히 쓰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치도 안타 『前車之覆은 後車之鑑』라고 前日의 『드면』은 後日의 『한다』로 幻生하는 것이다 後人이 先人을 評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 甲의 일을 乙이 論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自古로 歷史的 批判이란 대개가 이 『드면』을 意味한 것이다. 堯의 子가 不肖하지 안엇드면, 舜의 子가 巴보가 안이엿드면, 桀이 淫蕩하지만 안엇드면, 紂가 暴虐하지만 안엇드면, 秦始皇이 豪華를 들 하얏드면, 楚霸王이 自刎을 말고 再舉를 하얏드면…… 이것이 모다 그것이요 壬辰 當時에 粟谷이 生存하얏드면, 丙子胡亂에 林慶業을 善用하얏드면, 대원군이 鎖國主義를

안췌드면, 金玉均이 三日天下만 안이엇드면, 東學黨이 政治的 訓練만 잇섯드면…… 이런 것이 모다 先人の 非를 指하는 同時에 後人에게 주는 큰 敎訓이요 銘鑑이다.⁴⁸⁾ (밑줄 인용자)

‘~드면(했다면)’이라는 가정법은 결국 ‘그때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가설을 세우고,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의 한 지점을 실제와는 다르게 구성하여 현재의 상황과는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는 ‘대체역사’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대체역사’란 원래 SF 소설의 하위 장르인 ‘대체역사소설’의 개념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단으로 개입하거나 바꾸는 일을 가리키며, 역사 그 자체를 본래와는 다른 흐름으로 다시 기록하는 행위⁴⁹⁾를 의미한다. 『별건곤』에 호명된 역사적 인물들이 놓여있는 시·공간은 대중의 기억을 재현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역사적 사건은 1920년대 당대의 문제성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역사적 비판”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대중 기억을 재구성하여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 역사적 인물들의 호명에 『별건곤』 편집진들의 치밀한 계산이 들어있다. 이이가 제시한 정치안은 당대 대표적 선진국인 미국의 상·하원제를 모방한 민주주의적 정치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을 본받으려면 선구안을 가진 뛰어난 정치가가 필요하고, 이이라는 인물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당대는 식민치하의 현실, 결국 힘,

48) 박달성, 〈最初の 民衆運動을 니르킨 東學黨이 政治的 訓練만 잇섯드면〉, 『드면록!! 그세에 이리헛드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엿슬가』, 『별건곤』 1927년 7월호(통권 7호), 23쪽.

49) 홀거 코르탈스, 『문화학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대체역사소설』, 『독일문학』 제90집, 2004, 324쪽.

무력이 지배하는 현실이었기에 힘과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필요하다. 임경업이라는 인물을 호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이가 있고, 임경업이 있어도 이런 인물들을 기용할 만한 우두머리가 있어야 한다. “용단(勇斷)”을 내릴 수 있는 우두머리, 대원군이 호명된 까닭이다. 정치가, 장군, 우두머리가 있어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니 이럴 때에는 혁명가도 필요하다. 김옥균 같은 인물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혁명은 소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 민중의 지지를 얻어 혁명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동학당의 호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드면록』의 기획은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대의(大義)뿐만 아니라, 이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다섯 가지의 필요조건에 대한 편집진의 고민의 산물인 셈이다.

다시 말하자면, ‘~드면’이라는 실재 역사에 대한 반사실적(反事實的) 가정법은 앞서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식민치하의 조선 역사를 재구성한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대한 서술이라 해도 결국 이러한 기사가 쓰이고 실린 당시의 외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현실에 대한 풍자와 비판, 그리고 치열한 자기반성을 담고 있는 것이다. 부조리한 식민 지배 체제하의 현 조선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조선의 대중이 바라는 것은 조선의 독립이며, 더 나아가 자주독립한 조선이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일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결국 『별건곤』은 이러한 취지하에 대체역사기법을 이용한 『드면록』을 실음으로써 독자들의 역사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지향해야 할 희망적 미래를 위한 필요조건을 제시하면서 민족의식의 고취라는 대의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식민치하라는 당대 조선의 현실을 만들어 낸 뼈아픈 과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물론이

다. 『별건곤』이 민중을 위한 대중잡지로서 민족정신의 고양을 위한 효과적 역사 담론을 펼치기 위한 서사 전략의 한 수단으로 활용했음을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서사 전략은 상업성을 담보로 하는 대중매체가 '역사'를 매개로 삼아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당대의 대중 독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서사 전략의 일환인 역사 인물의 서술 방식과 대체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대중매체는 당대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 개인이 속한 집단의 역사적 '기억'을 호출하는 동시에, 동일한 역사 '기억'을 갖고 있는 개인들을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역사적 '기억'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개인들로 하여금 당대의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역사'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의 생산은 당대 정치·사회적 상황에 따른 결과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근대의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른 현실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셈이다.

한편, 상업적 목적에 의한 출판이라는 매체적 특성에 따라 소재로 삼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은 급변하는 당대의 정세와 독자의 요구, 취향에 의해 취사선택되었으며, 그 내용 역시 편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편집진들은 광범위한 대중적 수용자가 요구하는 바를 파악하여 이들에게 맞는 대중적 문학 혹은 문화 내용물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대중 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당대 정치·사회 문제에서 소재를 택하거나 독자들이 자신을 투사하여 동일화할 수 있는 인물들을 서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필연적인 전략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별건곤』에 실려 있는 역사 서술물은 역사를 소재로 삼아 대중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식민치하라는 현실에서 당대 민중들이 지향해야 할 정신적 가치를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다른 특징은 전근대의 인물들은 전기(傳記)의 서사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호출되고 있으며, 비교적 근대의 인물들은 회고나 번역글 특집기사와 같은 형식의 글을 통해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사는 언제나 ‘사실(事實)’의 측면에서 기술되었으며, 따라서 허구성(虛構性)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취미를 발견해야 하는 당대의 맥락 속에서 허구성은 ‘역사적 사실’과 공존하게 되었다. 『드면錄』같은 서술물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독자들에게 그동안 익숙하게 다가왔던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별건곤』이 표방하고 있는 ‘취미’나 오락 담론은 단순히 쾌락이나 유희가 아니라 근대 계몽기부터 이어져 온 계몽 및 대중적 삶의 확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취미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당대의 조선인을 근대적 인간형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계몽의 탈각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별건곤』의 취미 담론은 일종의 민족 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계몽과 의식의 각성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후의 논의는 천도교 교단의 내부 변화 상황의 이해와 더불어 편집진의 면모를 깊이 있게 살펴서 『별건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또한 그간 대중소설로 폄하되어 왔던 『별건곤』 내의 서사

물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는 ‘통속성’이 문학과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로서 이러한 작업을 통해 『별건곤』이 갖는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여 올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하기로 한다.

* 『별건곤』 인물 관련 역사 서술 목록⁵⁰⁾

호수	제목	인물	필자
1호(1926.11.)	과학소설·전기, 萬古精忠 林慶業將軍	임경업	차상찬
	金玉均先生の 배노리	김옥균	김진구
2호(1926.12.)	中國의 一代風雲兒 孫文, 黃興의 처음 握手	손문	김진구
	高麗의 巨靈 美妻와 大金을 一時에 어든 獵師의 이야기	정몽주	향로산인 (香爐山人)
3호(1927.1.)	孫文自敘傳, 孫文이 死線을 뛰어넘든 이야기-英國亡命當時 淸國公使館에서	손문	일문생 (一聞生)
5호(1927.3.)	三萬大兵으로 京城을 占領한 李适元師의 甲子反亂記	이팔	차상찬
	金玉均先生の 죽든날	김옥균	김진구
	地下國訪問記, 現代 朝鮮靑年에게 與하노라	김옥균	진구생 (震興生) 記
	" , 우리가 본 現下 言論界	장지연, 유근, 이종일	남천산인 (南川散人) 記
	" , 正音을 創製하신 世宗大王께옵서	세종대왕	정생근 (鄭性謹) 記
	" , 經濟困難에 울고 있는 同胞에게	정약용	창석 (蒼石) 記
	" , 墮落하여 가는 現代 僧侶들에게	사명당 임휴정	지장보살 (地藏菩薩) 記
	" , 現代 男女音樂家에게 與하노라	박연	기암(磯岩) 記
	" , 所謂 富 所謂 貧者 諸君에게	허생	차돌이 記
6호(1927.4.)	" , 現代의 娼妓娼婦에게 與하노라	논개	풍류랑 (風流郎) 記
	" , 三大不平과 五大恨事를 드려 現代 有志諸君에게	홍경래	차돌이 記
	" , 現代學者와 儒生들에게	이이	
	" , 現代朝鮮사람에게	이순신	
7호(1927.7.)	" , 나는 民衆과 始終얏소	유길준	
	드면錄!! 그때에 이리했으면 只今 朝鮮은 엇지 되었슬가, 壬辰亂時에 粟谷이 生存하였으면	이이	홍승구
	" , 丙子胡亂에 林將軍을 信任했으면	임경업	차상찬
	" , 大院君이 外人排斥을 안했으면	대원군	조규수
	" , 金玉均의 變革運動이 成功했으면	김옥균	김진구
" , 東學黨이 政治的 訓練만 잇섯으면	동학당	박달성	

50) 이 목록은 인물 관련 기사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전(傳)이나 사화(史話), 야담(野談) 등의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특정한 양식 표기가 없거나 같은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8호(1927.8.)	歷代陰險人物討罪錄, 事大主義와 依賴思想의 張本人 所謂 海東朱子 宋時烈	송시열	김학보
	" , 殺主魅·害賢鬼 反覆無雙의 奸魁 鄭道傳	정도전	차상찬
	" , 朝鮮의 土禍를 즈음으로 이르킨 大凶孽·大奸物 柳子光	유자광	조규수
9호(1927.11.)	三將軍伸冤錄, 南往北伐의 大經綸이 水泡化 叛逆罪로 冤死한 崔瑩 將軍	최영	문일평
	" , 經國의 大志를 품고 글자 한 字로 冤死한 快丈夫 南怡 將軍	남이	조규수
	" , 싸운 칼을 써보지 못하고 獄中慘死한 金德齡 將軍	김덕령	신형철
10호(1927.12.)	痛快無雙快人快事錄, 漢陽末葉의 奇傑 大院王의 五大快舉	대원군	조규수
	" , 毒기政丞 元斗杓, 逐鬼·破獄殺人·宮門破碎·放火	원두표	차상찬
	" , 孫義菴의 三大快事(逸話中에서)	손병희	박달성
	" , 百斤鐵椎로 萬乘天子를 썩인 滄海의 두 力士 黎民雍은 博浪沙에서, 許熙는 蘭地宮에서	여민옹, 허비	신형철
	東西偉人受難記, 眞理의 扞持者 印度聖雄 안디先生,	간디	백홍균
	" , 『소크라테스』의 最後	소크라테스	임정순
歷代人物快死錄	사육신	김진구	
11호(1928.2.)	世外世 人外人 奇人奇事錄, 千古의 二大奇人 許由와 巢父	허유, 소부	맹현학인 (孟峴學人)
	" , 逐虎·弄龍造化無雙 東方理學者徐花潭	서경덕	취운정인 (翠雲亭人)
	" , 壬亂을 前知·死日을 自測 近代豫言家 南師古	남사고	죽서선인 (竹西禪人)
	" , 浩蕩放達·世俗을 超脫 俠士의 文豪 林白湖	임백호	누하동인 (樓下洞人)
	" , 飄子 한 개로 大洋을 平地갓치 航行 稀世大術家 李土亭	이지함	아성야인 (鰲城野人)
	" , 談諧諷刺로 一生放浪 不遇詩人 金삿갓	김병연	풍악낭인 (楓岳浪人)
	歷代人物快死錄 基二	정발, 애항, 송상현	김진구
12·13호 (1928.5.)	朝鮮史上 三大戰捷 이야기, 百萬隋軍을 一舉 全滅한 乙支公의 薩水大捷	을지문덕	문일평
	" , 一片孤城으로 三十萬唐兵을 擊退한 梁將軍의 安市大捷	양만춘	차상찬
	" , 盟山, 誓海, 萬古精忠의 結晶, 李忠武公의 閑山大捷(전문사계)	이순신	차상찬
14호(1928.7.)	歷代叛逆者列傳, 二十四歲靑年으로 自稱 大金皇帝 李澄玉	이징옥	수춘학인 (壽春學人)
	" , 三年間 京畿黃海兩道를 震駭하든 綠林豪傑 林巨丁	임거정	청오(靑梧)
	" , 民衆으로 이리난 甲午大變亂 東學軍 都元帥 全瑋準	전봉준	김병준 (金秉濬)

15호(1928,8.)	朝鮮三大內亂記, 溷陽朝最初反逆兒 關北豪傑 李施愛亂	이시애	수춘학인
	" , 地方的 差別待遇에 反抗한 平西大元帥 洪景來亂	홍경래	문일평
	" , 六月大變! 壬午軍亂의 回想記		
16호(1928,12.)	孫逸仙과 袁世凱의 地下面談記	손일선, 원세개	김진구
18호(1929,1.)	己巳生과 己巳死, 歷代人物列傳	윤증, 박세당, 김수항, 윤언이, 장만, 송시열, 박태보, 오두인, 민정중, 김익훈	권택규
	새 正月에 생각나는 사람들, 上海 埠頭에서 永別한 金玉均	김옥균	윤치호
	" , 臨死不懼하던 金弘集	김홍집	권동진
	" , 갈사록 思慕되는 孫義菴先生	손병희	최린
	" , 平生에 仰慕하는 鄭圃隱先生	정몽주	송진우
	" , 朝鮮心を 支持한 金大問	김대문	최남선
	" , 永世不忘 崔水雲先生	최수운	나용환
19호(1929,2.)	痛快無比한 李如松의 平壤大戰	이여송	수춘학인
	李太王俄館播遷事件 丙申二月大政變記		차상찬
	一張書로 天下의 不平客을 니르킨 平西 大元帥 洪景來檄文	홍경래	계산인(桂山人)
20호(1929,4.)	創道·建國·創語 三大偉人, 一寸舌一柄筆로 新國家 創建! 偉人 「마사리크」大統領	토마시 마사리크	청오생(靑 吾生)
	" , 世界文明의 恩師 國際語 創始者 자멘호프博士	자멘호프	경화생(鏡花生)
	본문내용 삭제되고, 차례에만 "崔水雲先生" 있음	최수운	
21호(1929,6.)	偉業은 青春에 있다 東西偉人의 青春時代, 十七歲에 三國統一의 大事業計劃 金庾信의 青春時節	김유신	이윤재
	" , 二十六歲 陸軍大將으로 滿洲를 드리친 南台將軍의 青春時代	남이	차상찬
	" , 十七歲에 千里賊陣을 突破獨行 鄭忠信의 青春時代	정충신	취운생
	" , 十五歲青年으로 敵軍을 震駭 翼虎將軍 金德齡의 青春時代	김덕령	신명균
	" , 二十四歲에 强奏를 따려부신 天下壯士 項羽의 青春時代	항우	박달성
	" , 新興國 체크 大統領 마사리크의 青春時代	토마시 마사리크	이일
	新興國의 新人物, 青年土耳其와 「케말 파사」	케말 파사	청오생

	" , 波蘭의 靑年風雲兒 필스도스키元帥	필스도스키	창석(蒼石)
22호(1929.8.)	痛快無雙奇人篇, 朝鮮의 諸葛亮인 天下奇人 먹적골 許生員	허생원	수춘학인
	" , 天下의 大鈍才로 一世의 大文章된 金栢谷	김득신	김진구
	" , 갯으로 밥짓고 박아지로 航海 天下大奇人 李土亭先生	이지함	충청생 (出靑生)
	" , 濟川亭에서 日軍을 弄絡하던 一戲劇 名物 男李謹	남이근	송작생 (松雀生)
	" , 四象醫學의 元祖 近代奇人 李濟馬先生	이제마	김병제 (金秉濟)
	" , 奇人中奇人 不遇畫家 崔七七	최북	취운생 (翠雲生)
	" , 女流大奇人 開城名妓黃眞伊	황진이	청오생
	" , 이 世上 人物갓지 안흔 現存한 大奇人 六峯 禹龍澤先生	우용택	이윤재 (李允宰)
	" , 世界의 大奇人物, 사무얼 존슨博士	새뮤얼 존슨	이동원 (李東園)
	" , 痛快한 奇哲人 桶藏菩薩	디오게네스	고영환 (高永煥)
25호(1930.1.)	特輯讀物, 妖僧 라스푸친(二)	라스푸틴	취운생 (翠雲生)
	十年間 話頭에 오른 世界新人物, 印度의 聖雄 안디	간디	
	" , 알바니아 『소그』王	아메드 B. 조그	
	" , 黑人首領 압델·크림	압델 크림	
	" , 伊國 몯소리니의 片鱗	무솔리니	
	" , 土耳其의 케말파샤	케말 파샤	
	" , 波蘭의 필스도스키	필스도스키	
	" , 新中國建設者 孫逸仙	손일선	
	" , 波斯新王 리싸·간	레자 샤 팔레비	
	流落東西 七顛八起 偉人奮戰記, 革命 前後 『레-닌』의 生活	레닌	북태생 (北態生)
" , 文明의 恩人 『에디슨』의 刻苦 生活	에디슨	월호생 (月湖生)	
27호(1930.3.)	偉人·難關·努力, 勇斷一貫의 孫義菴	손병희	박달성
	" , 나폴레옹과 佛蘭西의 基業	나폴레옹	백릉(白菱)
	" , 脫刑報仇范雎譚	범휴	월호인 (月湖人)
	" , 알바니아 『아메드·조그』王	아메드 B. 조그	청오생
	" , 百年戰爭과 倭·샤·크	잔다르크	소저(昭姬)
34호(1930.11.)	乙支文德墓參拜記	을지문덕	이윤재

108 대중서사연구 제20권 1호

36호(1931.1.)	自稱大燕王 洪景來辛未反亂記	홍경래	차상찬
	甲午東學亂의 第一聲 開慶 李弼의 亂	이필	이돈화 (李敦化)
47호(1932.1.)	朝鮮壬申史에 빛나는 薩水大戰捷	을지문덕	삼산인 (三山人)
	北滿의 梟雄兒 馬占山은 었던 人物인가	마점산	양상호 (楊相浩)
	칸디의 倫敦 갔던 이야기	간디	김윤모 (金允模)
53호(1932.7.)	내가 革命을 맞나든 이야기	알폰소 13세	서반아국왕 알폰소 13세
	北滿의 問題人物 馬占山 齊齊哈爾 脫出記	마점산	양상호 (楊相浩)
62호(1933.4.)	史談에 나타난 情話 高齋峯先生과 公州妓	고경명	수춘산인
64호(1933.6.)	죽었다는지 아홉달만에 馬占山 伯林에 突現	마점산	남일(南一)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개벽』 영인본, 박이정출판사.
『별건곤』 영인본, 도서출판 역락.

2. 논문 및 단행본

- 공임순, 『한국 근대 역사소설의 장르론적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0.
권채린, 『산책을 둘러싼 대중 담화의 지형도: 대중잡지 <별건곤>의 경우』, 『어문연구』 40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45~272쪽.
권태환, 『일제 식민통치와 사회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원, 1990.
김정인, 『일제강점기 저항담론의 분화구 『개벽』, 『내일을 여는 역사』, 서해문집, 2005.
김진량, 『근대 잡지 『별건곤』의 “취미 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88호, 한국어문학회, 2005, 331~352쪽.
김태웅, 『일제 강점기 김진구의 활동과 내선일체론』, 『역사연구』 13호, 역사학연구소, 2003, 19~102쪽.
김희정, 『『별건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권2호, 복식문화학회, 2004, 211~223쪽.
대중문학연구회, 『대중문학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평민사, 1995.
박숙자, 『1920년대 사생활의 공문화와 젠더화: 『별건곤』에 나타난 비밀코드와 여성의 기호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 179~198쪽.
_____, 『괴기에서 넌센스까지: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 『별건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5, 163~195쪽.
송명진, 『1920년대 과학소설 수용 양상 연구: 영주생(影州生)의 『80만년 후의 사회』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0호, 대중서사학회, 2003, 119~141쪽.
안희정, 『일제강점기 『별건곤』에 나타난 신여성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1.
오선영, 『대중소설의 유행과 장르 분화 『별건곤』 게재 소설을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6호, 부산대 문창어문학회, 2009, 119~144쪽.
유석환, 『식민지시기 근대소설의 발흥과 천도교 매체의 역할』, 『대동문화연구』 73호,

-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11, 231~257쪽.
- 이 숙, 『한국 대체역사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46호,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2004, 249~287쪽.
- 이상우, 『식민지시대 김옥균의 문화적 재현과 그 의미-식민지시대 김옥균의 극적 재현방식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58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327~386쪽.
- 이승윤, 『근대 대중지의 '역사' 수용 방식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56호, 한국문학회, 2010, 5~35쪽.
- 이희정, 『식민지 시기 글쓰기의 전략과 『개벽』』, 『한중인문학연구』31호, 한중인문학회, 2010, 165~188쪽.
- 전미경, 『1920~1930년대 "남편"을 통해 본 가족의 변화 - 『신여성』과 『별건곤』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29권, 한민족문화학회, 2009, 405~438쪽.
- 전미경, 『1920~30년대 가정탐방기를 통해 본 신가정』, 『가족과 문화』19권 4호, 한국가족학회, 2007, 103~130쪽.
- 전지은, 『《별건곤》의 영화담론 연구』, 『한국언어문화』42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385~410쪽.
- 전혜진, 『《별건곤》에서 드러난 도시 부르주아 문화와 휴양지 표상』, 『한국언어문화』46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5~31쪽.
- 조미희, 『《별건곤》의 직업관련 기사와 그 특성』, 『한국언어문화』41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10, 33~58쪽.
- 천정환, 『근대의 책임기-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 천정환·이용남, 『근대적 대중문화의 발전과 취미』, 『민족문학사연구』30호, 민족문학사학회, 2006, 227~265쪽.
- 최수일, 『『개벽』 연구』, 소명출판, 2008.
- 이에나가 유코, 『『개벽』과 『별건곤』을 통해 본 한국인의 한국 자량』, 『인문과학연구』33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12, 1~34쪽.
- 홀거 코르탈스, 『문화학적 고찰의 대상으로서 대체역사소설』, 『독일문학』90호, 한국독어독문학회, 2004, 311~325쪽.

Abstract

A study on history discourse
of 1920~1930s modern popular magazine 『Byeolgeongon』
: About representation method of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Zeong, Ka-Lam(Yonsei University)

There is a lack of general discussion about 『Byeolgeongon』, it because 『Byeolgeongon』 had advocated to hobbies and practical benefits. So it has significant meanings in terms of history as part of the narrative strategies and reconstruction of public memory to subsume for the 1920s public readers. It does not mean that simply pleasure or entertainment. It means that the spread of the Enlightenment and the public awareness in 'hobbies' or entertainment discourse of the 『Byeolgeongon』. To improve modern hobbies is not get rid of enlightenment. Rather, it means that the contemporary Korean reborn. As it were, the hobby discourse of byeolgeongon has a kind of nation discourse. This is called enlightenment and awakening of consciousness contributes to the role. I look at the history discourse to clarify. It because we can confirm select who to be indicators. As well as when it called these historical events and figures, we can found a narrative strategy.

(Key Words : 『Byeolgeongon(별건곤)』, hobbies and practical benefits, public reader, enlightenment, the awakening of consciousness, historical discourse, historical figures)

투고일 : 2014년 2월 28일 투고
심사일 : 2014년 3월 5~28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4년 4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4년 4월 11일 게재확정